

2018년 12월 14일

KIWO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둔화 우려 부각 여파로 혼조 드라기 ECB 총재 “유로존 경제는 예상보다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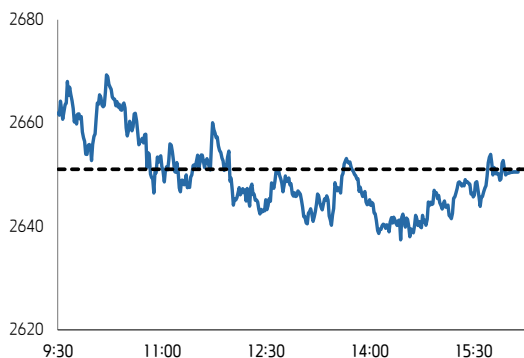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무역분쟁 완화에 힘입어 상승 출발 했으나,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며 혼조 마감. 특히, 일부 소매판매 업종이 실적 둔화 및 전망 하향 조정 여파로 중소형주가 하락폭이 컸던 점이 특징(다우 +0.29%, 나스닥 -0.39%, S&P500 -0.02%, 러셀 2000 -1.55%)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는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부각. ECB 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 한다고 발표. 한편, 금리는 동결 했으며 현재 금리는 2019 년 여름까지 유지한다는 가이드언스를 재차 확인.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과 부합된 결과였으며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음. 그러나 드라기 ECB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유로존 경제는 예상보다 약하며 전망 또한 하방 쪽으로 이동” 이라고 언급. 더불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믿고 있으나 위험 요인 또한 증가”를 주장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하자 매물 출회. 다만, “무역 환경은 2 개월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 한편 ECB 는 유로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18 년(2.0%→1.9%), 2019 년(1.8%→1.7%) 모두 하향 조정. 이런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장이 중국 경제에 대한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자극 했음.

그러나 지난 11 월 갤럽은 여론 조사 결과 미국민의 68%가 “좋은 직업을 찾는 좋은 시기” 라고 응답하는 등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 더불어 경제가 우수하다(14%)는 평가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57%) 라는 평가가 71%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우위를 기록해 경기 둔화 이슈가 확대될 개연성은 높지 않음. 이를 감안하면 19 일 FOMC 에서 경제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다만, 최근 연준위원들이 물가 하방 압력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증가하고 있어 점도표의 수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오늘 전반적인 매물 출회는 제한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종류(%) | Close | D-1 | 지수종류(%) | Close | D-1 |
|---------|-----------|-------|---------|-----------|-------|
| KOSPI | 2,095.55 | +0.62 | 홍콩항셱 | 26,524.35 | +1.29 |
| KOSDAQ | 681.78 | +0.78 | 영국 | 6,877.50 | -0.04 |
| DOW | 24,597.38 | +0.29 | 독일 | 10,924.70 | -0.04 |
| NASDAQ | 7,070.33 | -0.39 | 프랑스 | 4,896.92 | -0.26 |
| S&P 500 | 2,650.54 | -0.02 | 스페인 | 8,926.30 | +0.82 |
| 상하이종합 | 2,634.05 | +1.23 | 그리스 | 648.49 | +0.36 |
| 일본 | 21,816.19 | +0.99 | 이탈리아 | 19,048.83 | +0.5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판매 업종 하락

애플(+1.09%)은 퀄컴이 아이폰XS, XR등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 했으나 관련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애플이 주장해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무역위원회가 사실상 애플이 사실상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 할지라도 아이폰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입금지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네트워킹 장비업체인 시에나(+8.62%)는 양호한 실적 발표와 5억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P&G(+2.62%)은 BOA가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투자의견 상향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에 힘입어 킴벌리 클락(+3.93%)도 동반 상승 했다. GE(+7.30%)은 JP모건이 과매도를 기반으로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 하자 상승 했다.

의류 업체인 Tailored Brands(-29.84%)와 옥스포드인더스트리(-10.12%)는 부진한 실적과 전망 발표 여파로 급락 했다. 이 여파로 갭(-3.06%), 노드스트롬(-2.39%), 어반아웃피터(-4.52%) 등도 크게 하락 했다. 또한 TJX(-0.63%), 메이시스(-3.27%), 콜스(-4.42%) 등 백화점 업체 또한 동반 하락 했다. 타겟(-1.64%), 월마트(-0.16%) 등은 납에 오염된 장난감 판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 여파로 하락 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 | -0.56% | 대형 가치주 ETF | -0.13% |
| 에너지섹터 ETF | -1.45% | 중형 가치주 ETF | -0.60% |
| 소매업체 ETF | -2.72% | 소형 가치주 ETF | -1.24% |
| 금융섹터 ETF | -0.73% | 배당주 ETF | +0.01% |
| 기술섹터 ETF | +0.17% | 변동성 ETF | -1.66% |
| 소셜 미디어업체 ETF | -1.11% | 대형 성장주 ETF | -0.16% |
| 인터넷업체 ETF | -0.64% | 중형 성장주 ETF | -0.98% |
| 리츠업체 ETF | +0.69% | 소형 성장주 ETF | -1.54% |
| 주택건설업체 ETF | -0.95% | 신흥국 고배당 ETF | +0.59% |
| 바이오섹터 ETF | -1.51% | 신흥국 저변동성 ETF | +0.27% |
| 헬스케어 ETF | +0.10% | 하이일드 ETF | +0.23% |
| 곡물 ETF | +0.46% | 물가연동채 ETF | +0.03% |
| 반도체 ETF | -0.31% | Long/short ETF | +0.41%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67.05 | +0.36% | -1.55% | -3.31% |
| 소재 | 322.51 | -1.13% | -2.80% | -4.52% |
| 산업재 | 569.31 | -0.25% | -2.67% | -4.92% |
| 경기소비재 | 823.98 | -0.44% | -2.31% | -3.13% |
| 필수소비재 | 566.43 | +0.69% | +0.08% | -2.05% |
| 헬스케어 | 1,062.49 | +0.08% | -0.98% | +0.93% |
| 금융 | 404.86 | -0.59% | -4.34% | -8.60% |
| IT | 1,158.09 | +0.19% | -1.09% | -2.00% |
| 커뮤니케이션 | 145.92 | -0.18% | -0.58% | -0.71% |
| 유틸리티 | 287.02 | +0.88% | +1.31% | +2.96% |
| 부동산 | 206.08 | +0.61% | -3.03% | +0.38%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22% 하락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0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262 계약) 여파로 0.85pt 하락한 266.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하락 했다. 특히 소비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며 일부 의류 소매 업체가 부진한 실적과 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급락한 점이 특징 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는 한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기 둔화 이슈는 향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오늘 한국 시각 오전 11 시에 발표되는 중국 실물 경제지표에 주목된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고정자산투자가 중요한데 이 또한 지난달 발표치 보다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며 관세 발효가 된 이후 그동안 축소되던 고정자산 투자가 10 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중국 실물경제지표가 전월 보다 개선된 결과로 발표된다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 시킬 수 있어 한국 증시 반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무역분쟁 완화 및 2019 년 공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3% 가까이 상승하는 등 상품시장 안정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 후 낙폭을 확대하기 보다는 중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수입물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급락

미국 11 월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9% 하락 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1.8% 상승에 그쳤다. 수입 물가 또한 전월 대비 1.6%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로도 0.7% 상승에 그쳤다. 특히 수입물가 급락은 11 월 석유류 수입물가가 무려 12.1%나 급락하는 등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석유를 제외한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3% 하락에 그쳤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6 만건에 그쳐 지난주(23.3 만건)나 시장 전망치(22.8 만건)를 하회했다. 여전히 고용 개선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 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공급감소 기대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하기도 했다. 그러나 IEA(국제에너지 기구)가 월간보고서를 통해 내년 2분기까지 원유시장 공급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더불어 오클라호마 커싱지역 미국 원유 재고가 82.2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대수를 수입한다고 발표하자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긍정적이었다.

달러화는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강세폭은 제한되었다. 유로화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드러난 총재가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약세폭은 제한되었다. 파운드화는 메이 영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된 이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엔화는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하락 하기도 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3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7배)보다 낮은 2.31배를 기록하고, 국제유가 또한 공급감소 이슈 부각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장기물의 경우 상승 전환해 장단기 금리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구리를 비롯한 일부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7%, 철근도 0.89% 상승했다.

| 주요 상품 | 증가 | D-1(%) | D-5(%) | 주요 통화 | 증가 | D-1(%) | D-5(%) |
|-------|----------|--------|--------|---------------|---------|--------|--------|
| WTI | 52.58 | +2.80 | +2.12 | Dollar Index | 97.069 | +0.03 | +0.27 |
| 브렌트유 | 61.45 | +2.16 | +2.31 | EUR/USD | 1.1362 | -0.06 | -0.11 |
| 금 | 1,247.40 | -0.21 | +0.31 | USD/JPY | 113.58 | +0.26 | +0.80 |
| 은 | 14.855 | +0.03 | +2.38 | GBP/USD | 1.2660 | +0.25 | -0.95 |
| 알루미늄 | 1,932.00 | -0.36 | -0.21 | USD/CHF | 0.9939 | +0.04 | +0.13 |
| 전기동 | 6,155.00 | +0.24 | +1.40 | AUD/USD | 0.722 | 0.00 | -0.22 |
| 아연 | 2,566.00 | -0.16 | -1.04 | USD/CAD | 1.3353 | +0.02 | -0.22 |
| 옥수수 | 384.25 | -0.26 | +0.39 | USD/BRL | 3.8907 | +0.96 | +0.21 |
| 밀 | 536.00 | +1.80 | +3.98 | USD/CNH | 6.8775 | +0.06 | -0.05 |
| 대두 | 920.50 | -1.37 | -0.16 | USD/KRW | 1123.40 | -0.45 | +0.28 |
| 커피 | 104.10 | +1.02 | -1.75 | USD/KRW NDF1M | 1123.50 | +0.07 | +0.58 |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증가(%) | D-1(bp) | D-5(bp) |
|---------|-------|---------|---------|---------|-------|---------|---------|
| 미국 | 2.911 | +0.17 | +1.58 | 스페인 | 1.421 | -0.50 | -3.70 |
| 한국 | 2.020 | +1.30 | +3.80 | 포르투갈 | 1.669 | -4.90 | -14.00 |
| 일본 | 0.057 | +0.20 | -0.70 | 그리스 | 4.217 | -3.30 | -1.80 |
| 독일 | 0.285 | +0.60 | +4.90 | 이탈리아 | 2.953 | -4.50 | -24.60 |